

만사대평

2016년
12월호



1 마스텍 중공업(주) 대평동에서 사업 개시

지난 8월 27일 부산시 동구에 있던 마스텍 중공업(주)이 영도구 대평동 STX 조선(주)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10월 설립해 선박설계 및 해양구조물 엔지니어링, 신조선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마스텍 중공업이 STX 조선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소식에 대평동 주민들의 반가움이 컸습니다. 사실 마스텍 중공업이 들어온 자리는 과거부터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원래 대동조선이었다가 STX 조선으로, 그리고 이제는 마스텍 중공업이 그 역사적 명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스텍 중공업의 사업이 번창해 다시 한 번 대평동 조선소들의 전성기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3 문화사랑방 시즌 1 완료

8월 17일 시작해 10월 26일까지 열렸던 문화사랑방 시즌 1이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열렸던 문화사랑방은 대평동 주민과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일원이 모두 모여 소통하는 자리이자 배움과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주민에게는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대평동 5대 뉴스

글·김동진 편집위원

4 대평동 방역봉사 성황리에 마쳐

2016년 대평동 방역 및 청소 봉사가 지난 3월 25일 시작해 10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우천예보에 맞춰) 마다 진행되었습니다. 대평동 마을 운영위원회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새벽 5시 30분에 대평동 마을회관 앞에서 집결해 약 1시간 30분 간 마을청소 및 방역을 했습니다. 대평동 방역 봉사는 주민 스스로 주도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성실히 해오고 있는 대평동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2 물양장살롱 개최

지난 9월 30일 벽사유희 길놀이패가 대평동의 번창과 주민들의 건강,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날의 기원이 부디 하늘에 닿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물양장살롱 같은 축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5 대평새마을금고 폐업

대평동에 있는 유일한 은행이었던 대평새마을금고가 2016년 1월 1일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평동 주민의 손으로 만든 새마을금고의 폐업 소식은 새해부터 마을주민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 대부분이 새마을금고가 주거래 은행이었던 탓에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항동으로 다녀야하는 수고를 감수해야하게 되었습니다. 대평동이 번성하고 발전해 다시 마을에 새마을금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보내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16년도 추억 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을 마을에 정착시키고, 반듯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위원 분들과 마을 주민 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을을 사랑해주시고, 주민이 함께, 주도적으로 깡깡이 예술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주민 여러분 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사업 또한 더욱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글 · 대평동마을회 회장 이경진



백영신 사장(영신정밀)

2016년에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올해 9월에 대평동 주변에 있다가 공장이 좁아서 너른 데로 옮겼습니다. 이제 공장 질서는 잡혔고요 전보다 넓으니까 좀 편합니다. 개업할 때 (물양장살롱) 우연히 길놀이와 연결이 돼서 기분 좋게 개업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을에서 (길놀이를) 한다니까 기왕이면 함께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개업식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네 분들의 축하 속에서 제대로 개업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으신 것 같은가요?

열심히 하니까 노력의 대가는 나옵니다 (웃음)



나에게 2016년은?



이남선 어르신(72)

올해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은요?

2016년은 정말 감사한 해입니다. 백골 부대에 있던 우리 큰 손주가 올해 건강하게 제대를 했거든요. 제발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참 많이 빌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더 바랄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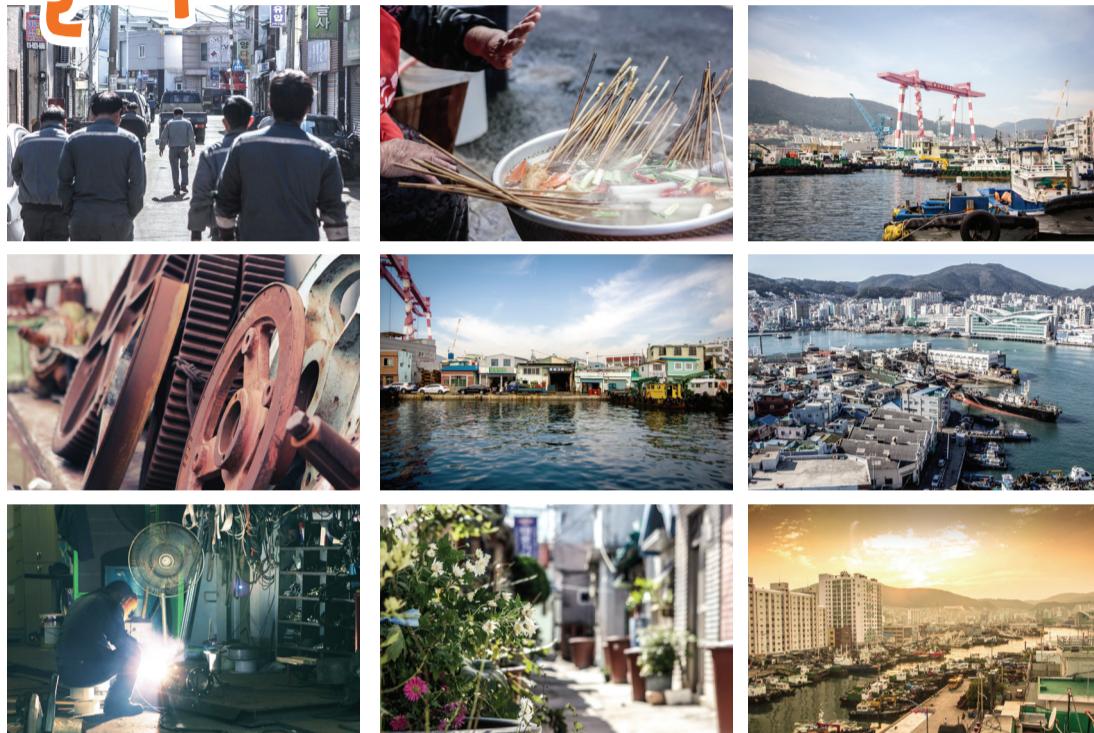


손점엽 어르신(86)

어르신께 2016년은 어떤 해인가요?

나한테는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그저 올해도 자손들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된 거야. 나는 내 자식에, 손주에, 손주의 자식까지 있는데 다 모이면 20명정도 되지.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고손주까지 있는 거야. 이름난 부자는 아니어도 모두 자기 힘으로 살고, 건강한 것이 올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지. 매년 이렇게만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

갓고 싶은 대평동의 풍경, 달력이 되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해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2017년 깡깡이예술마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외부에 깡깡이예술마을을 알리고, 대평동의 멋진 풍경을 담을 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공장이나 식당 벽에 대부분 달력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풍경이 아닌 대평동의 풍경

을 매일 보실 수 있도록 달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주민 분들께서도 적극 찬성해주셨습니다.

대평동에는 이곳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풍경들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의 배들이 만들어내는 편안한 풍경, 오래된 가옥들이 보여주는 고즈넉한 풍경, 숙련된 기술로 배나 부품을 다루는 조선소와 공업사의 활기찬 풍경과 오랜 세월 그 곁을 함께해온 주민들의 애정이 담긴 마을 활동들까지. 무엇보다 2017년 달력은 ‘대평동의 하루’에 초점을 맞춰 시간에 따른 대평동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마을 풍경이 담긴 달력과 함께라면 2017년 대평동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더욱 아름답게 기억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글·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김선영 운영팀장

깡
깡
이
오
늘
이

지난 10월 27일 목요일, 25명의 대평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주왕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주왕산의 높이는 721m로 영도 봉래산의 약 두 배 정도입니다. 평소 산을 좀 타신다는 김성호 부회장님, 이선자 총무님, 옥준관 어르신은 가뿐하게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이선자 총무님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산길이지만 가파르지 않아 별 어려움은 없었다.”며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거동이 편치 않은 어르신들께선 주왕산 밑에 위치한 ‘대전사’라는 사찰 주변을 둘러보며 가을 산의 정취에 흡뻑 취하셨다고 합니다.

중국 주왕이 피신을 온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주왕산’. 사실 대평경로당 어르신들의 주왕산 방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 정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왕산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집윤 노인회장님께서는 “주왕산은 바위가 6개가 있는데 봉이 참 좋아. 다른 산에는 그렇게 큰 바위가 없거든. 중국 왕이 어떻게 알고 이런 좋은 곳에 피난을 왔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대평경로당에서는 연례행사로 매년 5월에 모두 함께 나들이를 떠납니다. 봄철에는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가을 여행도 다녀오신 겁니다. 신정애 어르신께서는 “집에만 있는 것 보다 이렇게 함께 나오면 단합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역사 공부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올 가을 들어 부쩍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져서 모두 함께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대평경로당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고, 연례행사인 야외 나들이 전통도 오래오래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평경로당 어르신들의 주왕산 나들이

사진·주성환 어르신



25명이 가셨는데 단체사진에는 8명 뿐^^



대평동 연가

글·정우련 소설가 / 사진·송근배

영도는 섬이다. 나는 그 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도 영도가 섬이란 사실을 매번 잊고 살았다. 내가 태어나 21살까지 살았던 대평동 2가 81번지에서 영도대교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족하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원도심이다. 옛날에는 통통배를 타면 3분 만에 남포동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때문인지 영도는 늘 섬인 듯 섬이 아닌 듯 느껴진다.

영도구 대평동 남로 바닷가 쪽으로는 중소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었고, 북로 쪽에는 선박 수리에 관계된 공장들이 즐비했다. 우리 동네 아버지들은 조선소나 물류창고, 선박 수리 공장 등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들은 깡깡이를 했다. 깡깡이 망치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은 대평동 여자가 아니라고들 했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한때는 깡깡이를 했었다.

어깨를 맞대고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늘어선 골목을 나서면, 바로 코앞에 울도 담도 없이 아름드리 통나무가 산더미처럼 쟁여져 있는 조선소 마당이 나타났다. 조선소 공터에는 지름이 초등학생인 내 키보다 크고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둑근 통나무들이 층층이 쟁여져 있었다. 선박 건조에 쓰였음직한 그 큰 통나무 더미가 놀이터가 따로 없는 우리에겐 정글짐에 버금가는 훌륭한 놀이기구였다. 우리는 통나무 위를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면서 잡기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쩌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기계체조 선수에 뽑힌 것도 다 그 통나무 놀이터 덕이 아니었을까. 그 위에서 뛰어 놀면서 저절로 균형감각이 생겼지 싶다. 조선소 마당에 떨어져 있는 쇳조각을 주워서 엿 바꿔먹는 데 재미를 불이던 손톱이 까맣던 아이들도 생각난다.

조선소에서 진수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동네가 마치 잔칫날처럼 들뜨곤 했다. 눈부신 태양 아래, 알록달록한 만국기를 펄럭이며 바다로 스르르 미끄러져 나가는 배를 보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울렁거리던 기억이 난다. 고사떡과 돼지고기 편육은 또 얼마나 쫄깃쫄깃하게 맛있었는지. 어느 해, 부산에 폭설이 내렸을 때, 녹슬고 지저분한 조선소 마당을 하얗게 덮었던 눈이 생각난다.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몰려나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면서 놀았다. 눈쌓인 통나무 위에 봄, 꽃, 나비, 학근이 바보 따위의 글씨들이 쓰여 있었다. 온통 은세계가 펼쳐진 그 겨울날. 내 잔뼈가 다 굵은 그 좁은 골목길을 하얀 눈발자국을 만들면서 걸어나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사춘기적에는 집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깡깡이 소리가 싫어서 밖으로 돌았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깜깜할 때에야 집에 돌아왔



고 공휴일에도 영도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가슴이 트였다. 늘 엄마가 계신 성주 외가를 그리워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대평동과 아카시나무 울타리에 아침마다 날아와 재잘대는 참새떼 소리가 정다운 성주 외가는 얼마나 대조적이었던가. 마음 쓸쓸한 날이면 승리창고가 있던 바닷가로 마실을 나가곤 했다. 바닷가에 서면 딱 마주 보이던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의 불빛 사이로 언제나 분주하게 오가던 사람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크고 작은 배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멀리멀리 떠나고 싶었다.

이제 나는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가 더 많은 나이가 되었다. 가끔 대평동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멀리서 고향 소식을 듣는다. 대평동이 깡깡이예술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고향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깡깡이예술마을로 거듭날 대평동을 그려보면 벌써부터 행복해진다.





동네 속의 작은 동네, 대평동 이북동네 이야기 1

글·김수영 객원기자(한국해양대 4)

이북동네에 가면 미로와도 같은 좁은 골목, 한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은 4~5평 크기의 방,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집들은 오늘날 조선소 노동자들의 탈의실로 간간히 이용될 뿐입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북동네'. 30년 이상 이북동네에서 살아온 권정자(83), 이득례(69세), 박양단(9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절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제2의 고향이 되어준 '이북동네'

6·25 전쟁으로 17살에 남으로 내려온 권정자 어르신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입니다. 피난 온 후 포항에서의 생활도 잠시, 영도 대교동에서 살다가 21살에 결혼해 대평동 이북동네 자리에 27만 원을 주고 하꼬방을 사서 신혼집을 차린 후 줄곧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고향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이북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 50년대 영도에는 꽤나 많은 이북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렵잖하게 기억하기로 이북동네에는 열 몇 가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평동이라는 공간 속에 또 하나의 작은 동네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북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북사람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경남 통영이 고향인 이득례 어르신은 15살이던 1962년에 선장으로 근무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대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평동 이곳저곳에 살다 이북동네에 정착한 후로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이남 사람들 중에서도 이북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주민 간에 사이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가 고향인 박양단 어르신은 목수일로 먼저 부산에 와 있던 남편을 따라 26살이던 해인 1952년에 대평동에 왔습니다. 80만원을 빌려 이북동네에 있던 4평짜리 방을 구입합니다. 당시 이북동네에는 피난민들이 많았고, 한 칸짜리 방조차 얻지 못해 난리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북동네는 다양한 곳에서 찾았던 사람들을 품어주고 정착하게 해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2017년 1월호에 계속

대평동 용어사전

감수·문호성(선박설계기술사)



[벨로우즈와 자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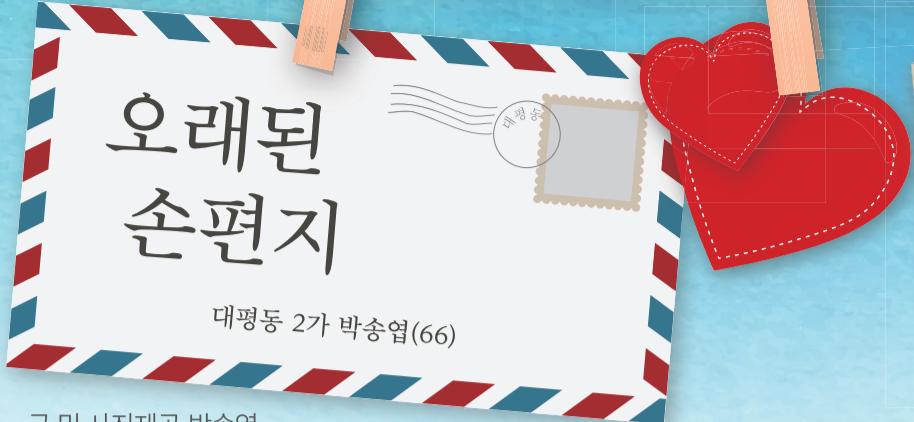
대평동 거리를 걷다보면 낯선 이름의 간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밸로우즈', '자바라'라는 명칭이 눈에 띠는데요. 벨로우즈와 자바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밸로우즈'를 찾아보니 '풀무'를 가리키는 영어단어인 벨로즈(bellows)인데요 대평동에서는 벨로우즈로 표기하지만 사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밸로즈'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바라'는 일본어(じやばら(蛇腹))로 뱀(蛇)의 배(腹)라는 표기대로 '주름 진 형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 다 '주름 진, 주름을 가진 형태의'라는 뜻으로 동의어지만 기술적인 용어로서는 주로 '밸로즈'가 쓰이며, '자바라'라는 말은 현장에서 약어/속어의 형태로 쓰이는 입말(口語)에 가깝습니다.

더 자세한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광신밸로우즈를 찾아가봤습니다. 18년째 광신밸로우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임송학 씨의 말에 따르면 쇠로 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벨로즈를 끼워 넣으면 이것이 스프링 내지 쿠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쇠로 된 파이프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주위 온도 변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길이가 바뀔 때 그 사이에 있는 벨로즈의 주름 간격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배관 길이와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신밸로우즈는 기계와 연결되는 파이프, 혹은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서 진동이나 열팽창으로 인한 변형,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름진 '밸로즈 타입의 신축이음(bellows type expansion joint)'을 만드는 곳입니다.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고온이고 엔진은 진동이 심하므로 배기관이 엔진에 연결되려면 신축이음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개 이런 금속제의 벨로즈 타입 배기관 연결이음을 쓴다고 합니다. 이름이 크므로 주름가공(성형)된 재료에다 나사연결부 등을 별도로 용접 및 취부(붙인다는 뜻의 일본한자이지만 기술현장에서는 정식 용어로 쓰임)하는 작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대평동 거리를 걷다가 벨로우즈, 자바라는 간판이 보여도 낯설지 않으시겠죠?





오래된 손편지

대평동 2가 박송엽(66)

글 및 사진제공·박송엽
정리·마을신문 편집팀

내 고향은 경남 남해야. 내 나이 17살에 처음 대평동으로 왔어. 원양선원이었던 육촌오빠가 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오게 됐어. 여기 올 적에는 대평동에 사람이 많았고 남항 자갈마당에 멀치배가 들어와서 막 고기를 뜨면 생선을 주우러 가기도 했지. 그 시절 대평동에는 매일 부두에서 싸우는 소리, 노랫소리, 웃음소리 등 뱃사람들의 소리와 철공소 기계 소리, 조선소 깡깡이소리가 들리는 참 복잡한 동네였어. 지난하지만 살아가는 재미도 있고 인정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활기찬 동네였지.

그렇게 지내다가 스무 살에 육촌오빠가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대평동에 살림을 차리고 살았지. 남편은 20년간 참치잡이 배를 탔는데 태평양에서 고기를 잡다가 2년 6개월 만에 한 번씩 집에 왔어. 우리 신랑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정이 많고 아이들에게 참 잘 잘했어. 직업상 아이들 곁에 항상 같이 있어 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카메라를 메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줬어. 참 세심한 사람이었어.



“80년대 초반일거야.
남해에 있는 천정에
가는 길이야.”

남편과 나, 결혼해서 서로 참 고생을 많이 했어. 남편은 타지에서 배를 타느라 힘들었고 나도 생선장사, 파출부, 마늘 까기, 깡깡이, 내복장사, 신발장사, 사무실 청소일, 요양 간병사, 희망근로사업 등등 안 해 본 일이 없지. 간이선착장 근처에서 분식집도 했었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작은 골목길에 곤로 하나 놓고 아이들과 함께 밥과 어묵과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 수 있었으니 말이야.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아이들 넷을 다 공부시켰어. 나는 어미로서, 남편은 아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 본 기사는 박송엽(66) 씨가 ‘나의 인생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써주신 A4 4페이지 분량의 글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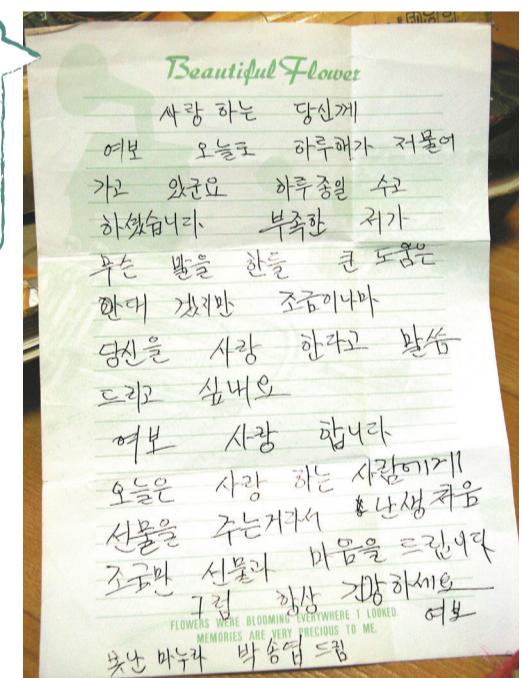


“1993년에 간이선착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했었어. 떡볶이랑 순대를
팔았지.”

나는 자식이 딸 둘, 아들 둘인데, 우리 막내가 4~5살 정도 됐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배를 안 타게 됐어. 나는 성격이 활달해서 남편이 집에 오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잘재잘 이야기하고 그랬어. 20년 만에야 제대로 결혼생활이라는 걸 해보게 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을 자주 했어.

“나는 남편에게 종종 편지를 써주곤 했어.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말야 (웃음)”

배에서 내린 후 남편은 1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을 했어. 센다이(선체) 잡는 일과 온갖 잡일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깡깡이며 뱃줄을 잡는 일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남편이



집 가까이 있어서 참 좋았어. 온갖 먼지, 셋가루, 페인트가루를 다 먹어가면서 일을 하다가 폐암이 와서 1년 9개월 정도 투병하다 지난 2005년에 결국 돌아가셨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아직도 한창 살 나이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갔으니 말이야. 고생고생하면서 살다 갔어. 20년 동안 배타고, 육지에서 같이 얼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정말 행복은 잠깐인 것 같아. 백년도 못 사는 인생살이 아옹다옹 매일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혼자 지낸지 11년 정도 되었네. 지금 생각해봐도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잘 안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지. 우리 신랑은 참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편지를 많이 써주었는데 이 편지 하나만 남았네. 이걸 보니까 아직도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하늘에 닿을 수 있다면 늘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고 싶어. 참 고마웠고, 보고 싶다고.

온
도
에
(기
이

욕지기가 올라
무어라도 툭 뱉어야 살아지는 인생

매일 뜨는 해를 툭 잘라
새해다, 헌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건挪마는

함께라면
젖은 신을 신고
젖은 땅을 딛어도
툭. 툭. 떨치며 갈 수 있다
함께하면 그럴 수 있다



사진·홍석진

포토에세이

‘옛날 맛 그대로 대평동을 만납니다.’ -또봉이통닭

글·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송교성 사무국장



체인점이 맛을 만들어 가는 시대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주문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같은 맛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항상 먹던 음식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된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체인점이 골목골목까지 쑥쑥 뻗어나가는 동안, 숨은 보석 같은 독특한 동네 맛집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평동 ‘또봉이통닭’은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분명 전국 어디에나 있는 또봉이통닭 매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대평동 지점은 다른 지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맛과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 명실상부, 대평동만의 맛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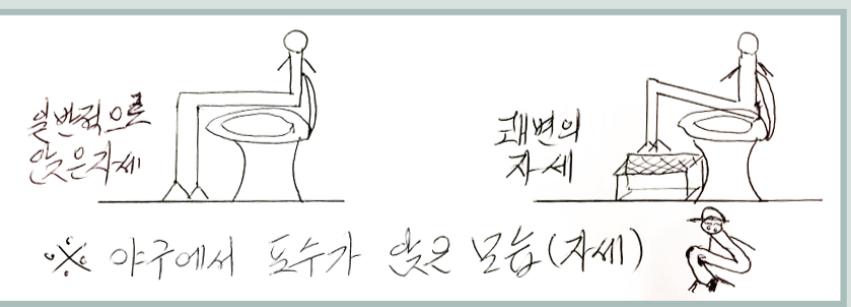
또봉이통닭이 자랑하는 바삭 담백한 옛날 맛과 만원이 안 되는 착한 가격은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겠지만, 손님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즐겨 찾는지 아는 주인 이모의 친절과 풍성한 마음이 더해져 더욱 맛이 납니다. 정성스럽게 튀겨서 기름기 쏙 빠진, 야들야들 부드러운 통닭은, 대평동이 자랑하는 술안주죠.

물양장의 땀내와 짠내가 낮게 드리워지는 저녁 무렵의 풍경. 그리고 또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온 대평동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음악처럼 곁들여진다면, 그야말로 일품 통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체인점 홍보 문구를 빌려 본다면, 대평동 또봉이통닭에서는 ‘옛날 맛 그대로 대평동을 만납니다.’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 상식

화장실에서 쾌변을 볼 수 있는 자세를 소개하려 합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위치에 발판을 놓고 앉은 자세가 장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덧붙여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릴 때는 꼭 뚜껑을 닫고 내리셔야 합니다.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오물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것, 기억하세요!



글·그림 이춘옥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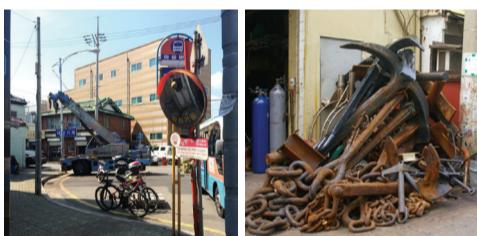
1. 마을 브랜드 디자인 최종 결과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마을 브랜드 디자인 제작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을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해 에코백과 핀버튼 등을 제작해 깡깡이예술마을 홍보에 활용했으며, 12월 제작 완료를 앞두고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 캐릭터 '수리'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수리조선1번지 대평동을 상징할 수 있는 형상이나 재료를 활용해 깡깡이예술마을 특산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2. 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가들이 색채, 소리, 빛 등을 활용해 대평동에 부족한 벤치나 조명시설 등을 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가 1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상상력과 수리조선1번지 대평동을 상징하는 다양한 재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아트벤치는 마을 버스 정류장 두 곳에, 라이트작품은 어두운 골목길에, 움직이는 조각 작품은 바람이 많은 (주)선진엔텍 부근에 12월부터 설치됩니다.



3.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



낡은 창고나 공업사의 벽면을 페인팅 해 거리에 활력을 주고 지역의 인상을 산뜻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기획한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 정크하우스(Junk-house)와 함께하는 깡깡이예술마을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자 자갈치나 영도 대교에서도 한 눈에 보이는 동명철공 창고를 중심으로 2016년 12월초까지 총 6곳의 공업사에서 진행됩니다. 무채색의 대평동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줄 월아트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4. 쌈지공원

주거지 내 공폐가 철거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대평동 2가 18동내 기존 쉼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공원 바닥 및 기본구조물이 조성된 이후에는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녹화 조성 방식 등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은 구조물을 제작하여 예술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생활지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축하, 돌기념, 고희기념, 업체광고 등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